

육질 두껍고 약효 뛰어나

집안 개울가, 밭두렁 야산등지에 가릴것 없이 자라고 있는 산수유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 구례 산수유는 그 품질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구례군 일대의 산수유 총 생산량은 약 1백80여 t 정도. 3백주 이상 대단위로 산수유를 재배하는 사람이서부터 다 산수유까지 구례군에서 땅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산수유 나무 한그루쯤은 가지고 있을정도로 산수유는 농토가 좁고 골짜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흔히 인접전국 제일의 품질로 평가된다.

『산수유』 산수유가 일 단 다들 지역 것에 비해 육질이 두껍고 약효도 뛰어나고 구례군 정 임영수(한남대학교약학부)는 이렇게 말한다.

구례군 산부소의 밭이 전담 구례의 특산물인 산수유 열매는 새빨간 색깔에 열두 크기만 하 다. 맛은 매우 시고 짠 어서 열매 자체를 날것 으로 먹지는 못한다.

따라서 갈초, 대추 등 과육이 떨어져 버린다. 예부터 자양, 강장의 약재로 쓰여왔고 동의 화학으로는 간과 신장을 보충해 달고 열을 제거, 유증상태 등에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

◇ 생약협회 구례군 사무소에 들른 재배농민들 (맨우측이 정일영 사무소장)

리 밭기 전에 열매를 채취했다가 비싼 농사일을 끝내고 씨를 발판한 후 태운데 2수정도 건조시킨다.

평년작인 경우 한그루 당 3~5kg을 생산해 낼 수 있으나 불에 서리가 많고 가뭄으로 꽃이 다 말라지면 일정한 수확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절도 있다.

11월부터 12월까지 시 장이 형성되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직산업을 사 가고 일부는 산물 5일 시장에서 일반소비자들 에게 판매된다.

산수유는 같은 열매종 류인 구기자나 오미자의 비해 인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. 가공과정의 복잡하기 때문이다.

『산수유』 산수유 열매를 달인 물에 함천과 설 탕을 섞어 목을 해 먹 고, 소주와 꿀 또는 설

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 는 5~6천원선으로 크 게 떨어진 것.

구례군 광의면 정일영 씨가 『최소한 7~8천 원 선을 유지되어야 인건 비 제하고 소득이 바랄 수 있다』고 말한다.

일부 농민의 수확량도 감소했다. 현재 농 협이나 수협에서 일부 수매하고 있는 하지 만 극히 소량이며, 산수 유 시세가 한창 상하가 를 유지한 뒤 92년 당시 심어진 산수유가 내년부 터 수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수확량은 점점 로 줄어들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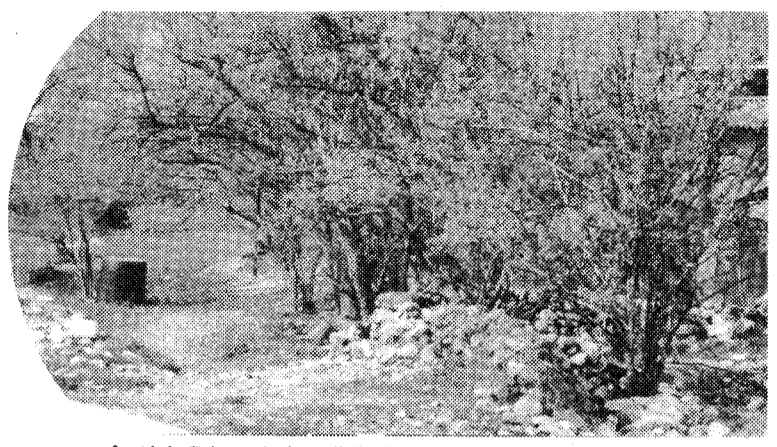
농민들은 앞으로의 판로에 더 애를 태우고 있다.

산물면적도 농민들의 협회 산물면 분사무소 장) 『농민들이 개인적 으로 수직산업을 개편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 르더라도 생산자들에게 의미의 차이가 크기가 많았다』며 『다(하)수매 하는 식으로 산수유를 받고 계통화하면 정 부를 통해 수출관리를 개편한다면 일정한 시세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고』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보다 안정하고 산수유 재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했다.

한편 산수유가 신용관 리나 관공제(비)로 가 치가 있고 한파가 일 부로 포도, 사과를 수출한 전도 있다. 따라서 구례 군 산물면적도 앞으로는 현재 농민들의 열의를 하우까지의 2차년도로 가 완화된면 일 열매의 산수유 나무를 심어 지 약 10년 후부터는 산수유 의 수확량이 늘어날 것 이다.

가공의 산수유가 한 학계 단계할 무렵인 5~6년 후쯤엔 노란꽃 만을 수출하는 현상도 그 만큼 박이기를 기대해 본다.

예부터 자양·강장·한약재로 사용 노란꽃 빨간열매 관상수로 인기



◇ 산수유는 집안, 개울가, 야산등지에 가릴것 없이 자란다.

탕(로) 밀봉, 속성시켜 만든 산수유주도 강장주 로 등장했다.

인물에서는 산수유 열 매 달인 물로 차도 만들 어 마신다.

산수유 나무는 키가 5m 정도의 고목으로 산 동면, 관산리, 원촌리 등 구례군 전지역에 대 대로 자생해 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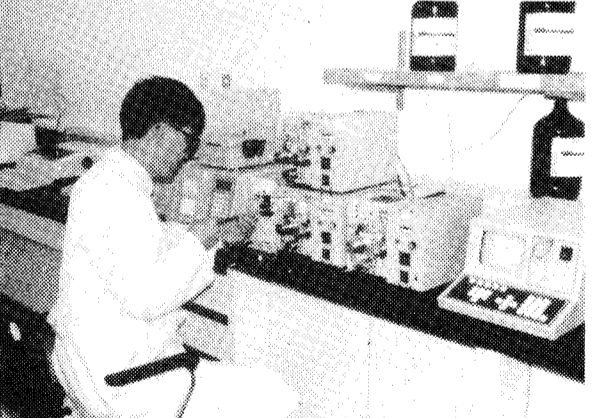
산수유는 심고나서 꽃 이 피기 시작하면 5~6년 후부터나 수확이 가능하다. 산수유꽃은 2월에서 3월 초 개화한 다. 그래서 이곳 산물면 의 이른 봄엔 노란꽃만 개한 산수유를 활영하기 위한 사진작가들의 발길 로 북적거린다.

열매가 빨갛게 익을 무렵인 10월 중순경부터 수확이 가능해져서

거쳐 씨를 발판하여 하 기 때문에 하루종일 해 도 2~3시간 정도가 고 작이므로, 오후에 기 계가 개발돼 인력으로 할 때 보다 10배 정도의 작업량을 투입 수 있 어 다행이긴 하지만 기 계와의 워라 비와 농가 마다 두루 갈출수 없던 실정이다. 밭이농한 이 열매(산물면) 신용협 동조합 이사().

포도나 사과를 산수 유 시세가 큰 품이므로 열 과 작 품인 열매의 수확이 다. 열매에서 수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 나 배어나 버리면 정수 도 20~30% 정도라고. 지난 91, 92년 당시 산 수유 시세가 1만 4천원 까지 나갔는데 그 정도로 재미를 보았지만 지난해

약초 연구기관을 찾아서 ② 함양 약초시험장



◇ 약초성분 분석중인 김만배 품질이용 연구실장

함양약초시험장(장 장·김만배)은 약초의 보급과 관련된 지리산 자락 함양관 안의 면 표고 220m 지점의 자리하고 있다.

지난 92년 1월 대 통령령 제13,576호 로 지정신청이 되면서 부터 93년 7월의 중 산기시험장을 흡수한 함양약초시험장이로 약초시험장의 역할 을 하게 됐다.

함양약초시험장은 최첨단 실험기기를 갖 춘 본관 연구실 2백

30여평, 자동화하우스 3백37평, 저장가공실 1백46평, 시험재배 포장 6ha 규모로 장비 및 실험기기 1백24종을 보유하고 있 다.

연구사 8명, 기능 직 4명, 연구관 1명 이고 품질 약초 생산 기술을 개발, 보급한 다는 목표 아래 우선 자원 수집보존, 자원 시들의 재배기술 개 발, 유망약초의 대량 증식기술 개발, 유효 성분 분석체제 확립 및 가공기술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.

이들 위해 우선 수집 된 약초의 생리상태에 관한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그러나 연구대상인 약초의 종수가 워낙 방대하고 품종종이 분 류가 학부적으로 완전 히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, 오래부 의 산재해 있는 실정 이다.

이러한 가운데서도 함양약초시험장은 자 생약초 1백27종 수집 을 비롯하여 연구에서 전량 수입되는 백출, 창출의 국내 생산을 위하여 우수 품종을

백·창출 자급위한 우수품종 육성에 주력 홍화의 숙기별 성분차이 및 효과 구명

를 구명해 내기 성과 를 거두고 있다.

김만배 품질이용 연구실장은 다른 홍화 꽃잎의 숙기별 카르타 민 함량(개화 후 5 일째가 가장 높고, 마 우스에 대한 실험 결과 수축은 3mg/ml, 심 박수는 1mg/ml 투하 시 강하게 나타나는 종자의 숙기별 지방산

은 개화후 25일에 65 %로 가장 높고, 종자 의 적률과 또한 조 사 33건 중 22건(67 %)으로 나타났다.

이밖에도 두충의 고 혈압강화 성분인 피 노레시놀(pinosres in) 디글루코사이드 (diglucoside)를 분석 하여 두충의 껍질에 도 두충의 함유량이 많음을 밝혔다.

그동안 이루어졌던 연구성과가 큰 만큼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암하다.

부인하지 않게 4개 월을 맞이 함양약초시 협회 김만배 연구실장 은 앞으로의 함양약초 연구계획에 대해 이렇 게 말했다.

『앞으로 우수한 지 리산 자생약초를 2~3년 시험재배해서 적 응성, 체질성 등을 연 구, 농가에 보급하고 UR 대체작업으로 활 용되도록 할 계획인 다』

해 『홍화재배연구실 품질이용연구실 기공 을 전후, 홍화재배를 통한 홍화재배의 전장가 공시험을 통한 거처 농가수급전반 발육의 총합을 다 할 것이라 고 했다』

새삼이나 할 때부터 는 전후 20일이면 다 양하게 익혀서 아성 산수를 전후 홍화재 배 시험재배하기 전과 같 은 패턴이다.

약초시험장은, 또 정 보관한 전담실험을 위해 약초재배농가 연구농 가 무원 100명 이상으로 현안 상황, 거점지역 약초시험장, 홍화재배 연구농가, 민중들도 활영도 전과 지원해 주고 있다.